

유태종 기자 youh@chosun.com [기자의 다른 기사보기](#)

입력 : 2008.05.19 22:11

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08/05/19/2008051901627.html

충북 이번엔 '문화선진도(道)'

그동안 기업투자 유치 등 '경제특별도' 건설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온 충북도가 '문화선진도(道)' 구현을 선언하고 나섰다.

정우택 충북지사는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"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문화선진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"이라고 밝혔다. 정 지사는 "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2010년까지 150억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을 설립 할 것"이라며 "2012년에는 기금을 2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"고 말했다.

이와 관련, 충북도는 문화선진도 구현을 위해 ▷앞서가는 충북 문화상 정립 ▷창조문화의 동력 확보 ▷신명나는 문예활동 진작 ▷품격있는 문화가치 창조 ▷나눔과 소통의 문화조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.

부문별 실천계획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문화현장을 제정·공포하고, 충북을 빛낸 역사·문화 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한다.

또 충북문화포럼 운영, 도립예술단 창단, 문화전수관 11곳 건립, 예술활동 지원액 확대, 무형 문화재와 기업간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. 이밖에 문화예술회관, 박물관,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현재 75곳에서 2011년까지 102곳으로 늘리고,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을 통한 '메세나' 운동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.